



8조 6천억원 예산지원 경쟁력 배양 농어민 피부에 와닿는 현장농정 강화

농림수산부는 금년도 농정의 주요업
무계획을 발표하였다. 96년도 정부의
농정목표는 지난해의 연장선상에서 보
다 구체화하고 있다. 21세기 일류국가
를 향해 농어업 경쟁력 강화와 구조개
선에 박차를 가함으로써 농어업인에게
희망과 보람을 주고 농정에 대한 신뢰
도를 높인다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농정목표를 보면 첫
째 세계와 경쟁할 수 있도록 농어업인

력 확보를 위해 쌀 주산지역에 설치한
미곡종합처리장 운영을 활성화하며,
쌀값을 적정수준에서 유지하여 농가의
쌀 생산의욕을 고취한다는 것이다.

셋째 기술 및 수출농어업의 활로를
본격적으로 개척하여 수출농업을 육성
한다는 것이다. 첨단기술 개발, 농어
촌 현장의 기술적 애로 해결을 통해 우
량종묘육성과 품질고급화를 지원하며
수출농업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한 지원
체계를 확립한다는 것이다.

일본, 동남아 등 유망수출지역에 대

“경쟁력 강화와 구조개선에 박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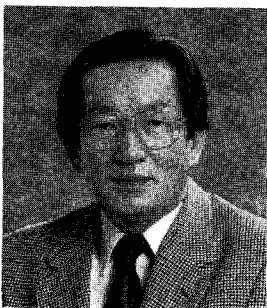
전문경영인 양성, 쌀생산의욕 북돋기로 규제보다 자율로 신뢰받는 농정돼야

의 역량을 배양하기 위해 8조6천억원
의 예산을 지원하여 능력있는 전문경
영인과 우수 지방자치단체를 집중적으
로 지원하고, 투자효율을 높일 수 있
도록 농림수산업의 심사 평가를 강
화하며, 이미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발
전대책과 농정개혁의 성과가 농어업인
의 피부에 와 닿도록 현장농정을 강화
한다는 것이다.

둘째 쌀의 자급기반 확충을 위한 중
합대책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쌀을 안
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벼 재배면
적을 최대한 확보하고, 쌀 생산성 향
상을 통해 생산비를 절감하며, 쌀 전
업경영체를 집중 육성하고, 쌀의 경쟁

력 확보를 위해 쌀 주산지역에 설치한
미곡종합처리장 운영을 활성화하며,
쌀값을 적정수준에서 유지하여 농가의
쌀 생산의욕을 고취한다는 것이다.

넷째 농수산물 수급 및 가격대책을
강화하여 농어가 소득을 증대한다는
것이다. 생산단계에서부터 농가가 자
율적으로 적정생산을 하여 제값을 받
을 수 있도록 품목별 생산자조직을 육
성하고 농업관측 활동을 내실화 한다
는 것이다. 산지 및 소비자 유통시설
의 지속적인 확충으로 유통비용을 절
감하고 우수한 우리농산물에 대한 상
품차별화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여 우
리농산물의 맛과 안전성에 대한 소비
자의 신뢰를 확보한다는 것이다.



권 원 달

충북대학교 농업경제학과 교수



다섯째 농어촌을 매력있는 삶의 공간으로 조성하여 활력을 증대한다는 것이다. 농어촌의 도로, 상·하수도 등 마을기반정비, 낙후된 주거환경개선으로 쾌적한 생활공간을 조성하고 농어촌을 1,2,3차 산업의 복합산업 공간으로 개발하여 소득원 확충과 지역개발을 촉진한다는 것이다.

농어촌의 교육, 의료, 농어업인 연금, 농작업재해 공제 등 복지증진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농어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것이다.

것이다. 농업업의 첨단기술산업화와 정보화 촉진을 위해 현장기술 애로해결과 첨단기술연구를 구체적으로 지원하며 농림수산종합정보망을 구축하여 농업경영혁신을 뒷받침한다는 것이다.

수출농어업의 활로를 본격적으로 개척하고 통상협력 및 수입관리로 국내농업을 보호한다는 것이다.

농산물 수급과 가격안정 대책으로 농어가 소득증대를 지원하며 농어촌의 활력증대와 복지증진, 행정규제 완화와 농어업인의 불편해소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이다.

농약등 우량농자재 개발보급 환경보전형 농업육성에 역점

금년도 농정업무계획의 특징은 예산면에서 8조 6천4백33억원으로 전년대비 4.8%가 늘어났고 농어촌소득원 개발 및 생활 환경 개선, 생산기반조성 부담경감 및 채무상환부문이 전년대비 크게 증액되었다.

정책방향면에서는 경쟁력 강화와 구조개선을 통해 농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인다는 점과 쌀 자급기반 확충, 그리고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시책을 적극 추진한다는 점이다.

업무계획면에서는 우리 농어업인의 경쟁대상을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대응역량을 배양하는데 두고 전문인력과 법인경영체의 대응력을 배양한다는 것이다.

농어업인의 경쟁력 배양을 위해



쌀의 자급기반확충을 위해
쌀생산전업농 육성과
기계화를 제고, 중대형
농기계보급과
비료·농약·우량종자등
농업자재의 개발보급과
환경보전형 농업육성에
역점을 둔다

쌀 자급기반 확충 위해 1만호 전업농 육성추진

위와 같은 정책방향을 추진하기 위한 주요업무계획을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세계와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전문인력 배양을 위해 후계자의 계속육성, 1만5천호 전업농육성, 영농조합법인 육성, 농업회사법인 육성과 사후관리, 농림수산계 대학을 특성화 한다는 것이다.

쌀의 자급기반 확충을 위한 재배면적 확보, 고품질 다수확 품종개발, 1만호 쌀전업농 육성, 지속적인 기반정비, 농업기계화, 미곡종합처리장 지원확대, 농기계 사후관리 지원강화, 농업자재의 적정지원 등을 들 수 있다.

원예산업은 생산·유통·가공시설현대화에 주력하고 축산업은 전업화·단지화·계열화를 촉진하며 생산비 절감, 품질 고급화로 안정된 소득산업으로 육성한다는



선도경영체 육성과 영농조합법인 육성, 농정방식도 상향식 집행방식으로 지방농정을 활성화하고 현장농정을 강화하며 각종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와 투자효율성을 높인다는 것이다.

쌀의 자급기반확충을 위해 쌀생산산업육성 육성과 기계화율 제고, 중대형 농기계보급과 비료·농약·우량종자등 농업자재의 개발 보급과 환경보전형 농업육성에 역점을 둔다는 점이다.

원예산업의 시설현대화와 전업양축농가 육성, 육류의 차등가격 거제제 정착과 식육처리 기능사 제도를 도입한다는 점이다.

농어업에 첨단기술산업연구와 종합정보망 구축으로 정보이용을 촉진하고 농림수산물 수출확대를 위해 종합적 지원으로 수출목표 40억불을 달성한다는 점이다.

특히 통상협력을 강화하여 공세적 통상정책수단을 적극 개발하고 세계경제질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며 관세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한다는 점이다.

농산물 수급안정대책으로 생산자단체에 의한 가격안정사업을 추진하며 생산자 조직의 산지 수급 조절기능을 보강하고 물류표준화와 유통시설을 확충한다는 것이다. 특히 농어촌의 활력증대를 위한 생활 환경개선과 소득원 확충, 농어업인의 복지증진을 개선하고 각종 행정규제를 크게 완화하고 농어업인의 불편을 해소한다는 점이다.

시장경제지향한 자율농정으로 농촌환경개선·복지 중시돼야

농림수산업의 국내외여건은 급격하게 변화되었으며 그 전망도 낙관적이 못되고 있다.

국내적 여건은 소비구조의 변화, 시장내 경쟁심화, 농촌노동력 노령화, 개방화의 충격, 정보사회의 진전, 지방자치제에 따른 자율농정의 개편 등의 변화이다.

국제적 여건은 국제간 다자간 협상전개, 선진경제개발기구 가입, 그린라운드 진전, 세계식량공급의 악화 등 급변하는 환경변화로 적절한 대응책이 요구된다.

농림수산업의 전망도 성장률의 둔화, 국민총생산액중 농림수산업 비중 감소, 생산기반의 취약과 식량자급률 하락, 농어가소득의 상대적 감소 특히 쌀의 자급률 감소가 크게 우려되고 있다.

농업정책의 기조도 국가중심적 규제에서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자율농정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농촌의 환경개선과 농어민의 복지정책이 크게 중시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농정의 기본방향도 국민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경쟁력 있는 농업육성, 농어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쾌적한 농어촌환경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농림수산업의 미래상을 보면 2000년에는 국내총생산액중 농림수산업의 비중은 4.8%, 취업자 수는 1백66만명, 농업인구는 3백29만명, 농가호수 1백9만호, 식량자급률은 27.4%, 쌀자급률도 93.0%에 이를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우리의 농수산업도 식품산업에 주도하는 복합산업, 첨단기술의 장치산업, 환경조화적 생명산업, 그리고 전문화된 능률높은 산업으로 발전시키고 그러한 전망을 심어주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농정과제도 대외적으로 세계화에 걸맞고 대내적으로 계속되는 투자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야 할 것이며 농정체제도 지방화에 맞게 각종규제가 완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같은 전환기적 농정환경에서 기초식량의 자급기반확보, 특히 쌀의 자급률은 달성되어야 할 것이며, 쌀문제가 국민들의 논의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세계화에 대응하고 산업기반을 확립하려면 농업의 경쟁력은 제고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한 농업구조개선사업은 계속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또 농림수산물의 수급안정과 유통부문의 근대화가 촉진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농촌의 환경개선과 농민복지증진정책이 농업발달시책과 병행하여 농어민의 실정에 맞는 시책개발이 가시화되어야 할 것이다. 급변하는 농정추진과정이 농어민에게 신뢰를 주어야 할 것이다.

급변하는 농정기본계획이 성공하려면 정부, 농업관련기관, 농업관련산업, 농어민들의 역할분담과 특히 농어민의 창의적 농기업가정신이 유감없이 발휘되어야 할 것이다. **농약정보**